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의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한국불당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58호 현대불교
2009년 11월 18일(음 10월 2일) 수요일 / 불기 2553년
법공양 페이지

25

여러분이 없다면 상대가 어땠다고 상대를 원망합니까

나같이 죄 많은 중생이 뭐...

☞ 스님께서 주인공에 맡기면 다 해결이 된다고 하시기에 그 말씀 받들어 잘하고 가다가도 어떤 일이 오랫동안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그래, 나같이 죄 많은 중생이 뭐...' 하는 생각이 들면서 힘이 짝 빠지곤 합니다. 이런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여러분 혼자서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중생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은 전혀 하지 마시고 '내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내가 무슨 팔자야.' 이러한 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생각하기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죄를 꼭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을 자리가 없다. 시공이 초월해서 찰나찰나 돌아가니, 바로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 하는 거니까 거기 불을 자리가 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주인공에 모든 걸 맡기고 사세요.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기면, 아픈 것도 주인공에 맡기면 그 주인공 속에서 약사여래가 될 것이고, 가난한 걸 주인공에 맡긴다면 바로 관세음어 될 것이고, 임신이 안돼서, 또는 어떠한 사건이 생겼을 때 산신이 돼 주고 지신이 돼 주고 용신이 돼 주고, 지장이 돼 주고 칠성이 돼 주고 문수가 돼 주고 보현이 돼 주고 수호신이 돼 주고 법신이 돼 주고, 이 여러 가지 이름들이 한군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한군데 주인공 안에는 모든 철보가 가득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로 털구멍을 통해서 이 부처님 자체가 그대로 나오든 다 나오든, 바로 이 모든 수십억 마리의 생명들이 보살로 화한다 이 소리죠. 바깥에서 세균이나 영계나 유전성이나 병균이 들어오는 것도 다 바로 영광로에 넣으면 없어지듯이 바로 돌이 아닌 까닭에 그러한 것입니다. 안에서 그 악업 선업이 일어나는 것도, 역시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도 다 바로 이 물에다 물방울을 수없이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사 갈 때는 무엇을 잘못해서 어떤 날짜를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날 가면 그대로 법이다 이 소립니다. 또 누가 삼재가 들었다 이런 것도, 삼재도 그냥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지 거기 무슨 삼재가 붙습니까? 그러니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간다. 찰나 생활이다 할 때는 그 삼재니 팔자니 운명이니 뭐, 어느 달엔 좋고 어느 달엔 안좋고, 꿈을 꾸니까 또 언짢겠다, 좋다 이런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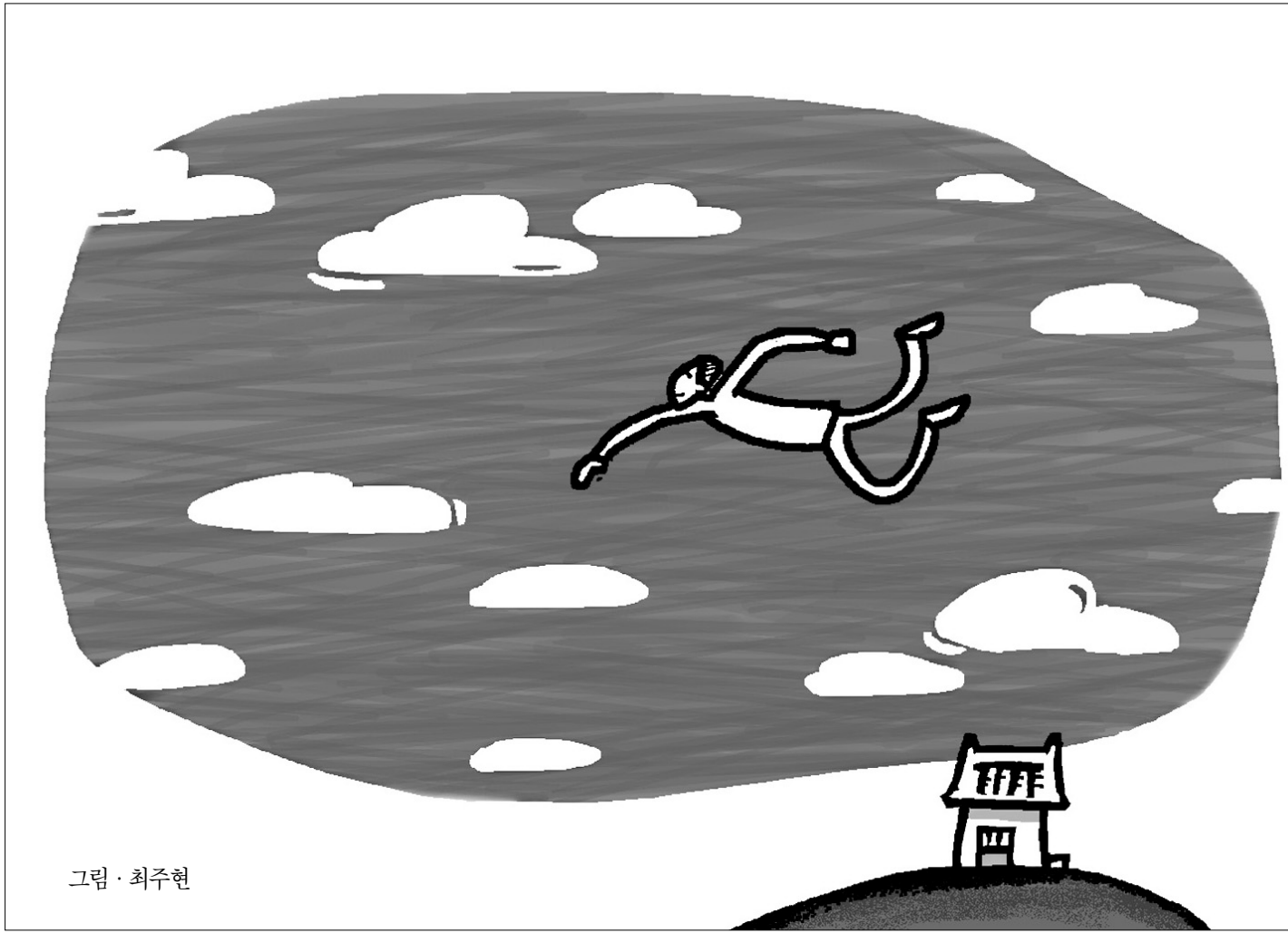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 의식은 체가 없어서 들어오는 거나 나가는 거나 한꺼번에 모두 그 교차로에서 돌아서고 만 모든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간지옥도 무너지고 화방지옥도 무너지고, 오간지옥 하면 여러 가지 지옥이 한데 합친 것이 오간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지옥이 무너지는 까닭에 인과가 끊어진다 이 소립니다. 녹아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런 뭐냐 하면 잔뜩 얼었던 얼음이 봄이 오면 녹아서 흘러내리듯이, 스스로서 흘러내리면 그냥 그 산하대지에 풀들이 무성하고 나무들이 이파리가 피고 뿌리가 심심하고, 이렇게 모든 생명들이 일어나서 봄을 맞이하듯, 우리도 역시 마음이 그렇게 모두가 녹아지면 과거의 업보라든가 팔자운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무너지는 것이 소립니다. 그러니 되든 안되든 끄떡리지 마시고 모두 주인

공에 놔 버리세요. 그런 데서 모두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의 결혼이 마땅치 않아

☞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바쁘게 맞벌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 딸 녀석이 결혼을 한다는데 영 마땅치가 않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다고 돌봐주지도 못해서 마음이 참 아프지만 제 생각엔 자식의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스님, 이럴 때 제가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할는지요?

☞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데는 낮고 높고 가 없습니다. 모든 아집과 이상, 나라는 조건을 바로 빼 버려야 이 공부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왜냐하면, 여러분이 엄마가 됐을 때에 나라고 하겠습니까, 며느리가 됐을 때 나라고 하

겠습니까? 또는 아내가 됐을 때에 나라고 하겠습니까? 나라고 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의 여러분입니다. 찰나찰나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라고 할 수 없는 게 부처님 나라고 할 수 없는 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내 거, 남의 탓, 남의 원망 이걸로써 모든 게 빚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상대가 어디 있다고 상대를 원망을 합니까. 가정에서도 여러분은 반드시 남의 원망을 하지 말고 아들이 잘못한다, 딸이 잘못한다, 남편이 잘못한다, 아내가 잘못한다 이래서 원망하고 성을 내고 그냥 싸움을 하지 말고 언제나 말을 부드럽게 하면서 안으로 자기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 한마음에다가 되놓으면 서 바로 부드럽게 "애, 어디 가서 뭐나 좀 먹었니?" 하고 부드럽게 대해 주세요.

외국에 나가 사시는 분들 보면 남편과 전부 그냥 실 사이가 없이 그렇게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사시더군요. 자식과 부모지간에도, 부부지간에도 보기가 드문 그런 가정이 많습디다. 서로 일 다니시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와 "요렇게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요렇게 음식을 요렇게 요렇게 해서 놓고 참, 너를 사랑한다. 이거 들어와서 먹어라. 엄마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부지런히 일을 해야만 되겠기에 너를 보필을 잘 못해주는구나." 하면서 그 한마디 한마디에 뽀뽀라도 해서 냉장고 바깥에 붙여 놓으면 이따를 하러야 이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금자리가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사랑스러울 수 있는 말 한마디, 따뜻한 그 애정, 그걸로 인해서 모든 자식들이나 또는 부부지간이나 이따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애석한 일이 있었습디다. 어떤 분이 그 저 자손들이 "결혼하겠습니까." 이러니까 아, 영 결혼을 반대하는 겁니다. 부모가 데리고 사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말리는 것도 어지간해야죠. 다리를 뻗을 자리를 보고 뻗어가지 덮어놓고 다릴 뻗어서 뻗어집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물에 빠져 죽어 버리고 말았죠. 외아들이네 그렇게 해서 죽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어른이 생각하는 지금 시대, 애들이 생각하는 지금 시대, 이 시대가 전부 생각하는 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애들이 생각하는 그 점이 어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유리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침착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침착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끔 일 주일에 한 번이라도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지시고요. 뭐 마담에 앉아서 뭐라도 먹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끔 만들고요. 사람이 만들어서 행복을 가져오지, 아니 행복을 누가 갖다 줄니까?

맷돌도 심봉이 없이 맷돌을 굴려 보십시오. 그 맷돌이 이따이 되지 않나? 프로펠러가 돌아가는데 바로 프로펠러 돌아가는 그 기동이 말입니다. 이거는 더하고 덜하고 없는 것입니다. 움직임을 없습디다. 그러나 바로 프로펠러는 그 능력을 믿고 그냥 돌아갑니다. 거기에 의지해서. 우리 육신은 그 프로펠러와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믿으라는데, 여러분의 주체,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불성이라고도 하고 바로 '참나'라고도 합니다. 그

☞ 26면으로 계속

당뇨. 비만 Diet

임상

고치기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맞춤 한방치료로 병력에 관계
없이 혈당이 정상으로 치료되는
최신 방법으로 기쁨과
만족을 선물 받으세요.

임상실험 Test 응하실 분 3일간
평균혈당 확인 후 방문해 주세요.

한솔한의원
031)555-7780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 안내

종 정 무진본 정화당
총무원장 해봉당 무공

불조(佛祖)의 혜명(慧命)을 근근히 이어오다 종파분열(宗派分裂)로 인해 불교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을 등지는 현재의 처함에 있어, 계종통합(諸宗統合)으로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를 이루고자 네 가지 큰 서원(四弘誓願)과, 상구보리 화하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함께 하고자 하시는 스님, 법사, 포교사님을 널리 모십니다.

※ 입종서류

- ◆ 분종 소정양식(입적원),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4장, 득도증서 사본 1통(계단장 또는 '사승')
- ◆ 입종하시면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 보호법 중에서 --

개인 사찰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분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문의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해봉스님 직통 011-545-5060

심적사 심적 시민 선원 개원

◆ 하안거 · 동안거 결재와
산철 결재 봉행 · 운영

- 개원일 : 2009년 12월 1일

◆ 매주 주말 철야정진 참선 법회운영

마음을 밝혀 참나인 불성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심적 시민선원을 개원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매월 초하루 3일 신중기도

매월 음. 9~11일 500 나한기도

매월 음. 18일 지장재일 봉행

전화: 055)973-1769,
011-9388-4255, 011-562-8640
팩스: 055)973-1206

경남 산청군 산청읍 내리 1127번지
진주에서 35분, 산청IC에서 8분거리

대한불교 조계종 응석산 천년나한도량 심적사

정도교학의 선지식 군맹당 서진스님의
병든 인생을 치료하는 묘약(妙藥)

『관무량수경』 공개강좌 수강생 모집



개강 : 2009년 12월 2일
(수요일)

- 기간 : 2009년 12월 2일(수요일)개강 후 6개월간
-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 수강료 : 10만원
- 모집인원 : 선착순 50명
- 장소 : 서원사 불교문화센터
- 접수마감 : 2009년 11월 30일까지
- 전화 : 02)983-7484
- 접수방법 : 전화 접수 후 수강료 계좌입금

